

"3퇴" 와 평안

제 114 기

『9 평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였다. 2013년 4월 6일까지 이미 1 억 3 천 5 백 86 만 중국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에 중공의 당, 단, 대에서의 탈출을 성명하였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의회 연구토론회에서 중공의 장기약탈을 중지 할 것을 호소

【명혜망】 2013년 3월 12일 저녁 “중국에서의 인체 장기약탈을 결속짓자”는 연구토론회의가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의회 대청에서 열렸다. 연구토론회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의원이자 록생당 법무당 대변인 슈브리지의원이 (오른 쪽 그림) 소집하고 주최했다. 특별히 먼 길에서 온 캐나다 전 아태지역 국무장관, 《피비린 장기적출》, 많이 팔린 책 《국가장기약탈》 작가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킬고어 선생은 친히 회의 장소에 왔고 여러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의원 및 사회각계 인사들도 연구토론회의에 참석했다.

슈브리지는 2월 19일에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의회에 《인체조직 (인체장기교역) 수정법 2003》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주민과 시민은 어떠한 국가 혹은 경로를 통해 생체적출 당하고 아울러 전매되는 장기를 접수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시에 불법 혹은 부도덕적인 수단을 통해 장기를 획득한 호주 국민과 시민에 대해 죄를 정한다고 제출했다.

슈브리지선생은 표명하기를 다년간 전세계에서 장기현납은 갈수



록 적어지고 있으며 오직 중국에서만 사람들은 몇 주일내에 이식 장기를 얻을 수 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중공이 감금된 사람에게서 특히는 파룬궁 수련생의 몸에서 “생체 장기적출”폭행을 진행하고, 그리고 전세계에서 계통적으로 매매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구토론회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전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은 이 사실의 진상을 들었다면 모두 용감히 나서서 생체 장기적출 그리고 불법 매매의 죄행을 제지해야 하며 이것은 인권, 도의에 관련될 뿐만아니라 또한 진정으로 당지 구역의 평화, 각자 가정의 심신건강에 책임지는 일이라고 여겼다. ◇

시드니 수련생들이 중공의 생체장기 적출을 제지하는 서명을 모집하였다

【명혜망】 2013년 3월 16일 시드니 파룬궁 수련생들은 시드니 캠시광장에서 재차 반박해 서명활동을 하여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적출한 죄행을 폭로했으며 천국악단도 현장에서 성원했다. 데이비드·존슨 (David Johnson) 이라고 부르는 한 호주인은 혹형 전시판의 그림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범한 하늘에 사무치는 큰 죄와 글로 이루어 쓸 수 없는 각종 잔인함은 그더러 상상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서명하였으며 어떻게 산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여 돈을 벌 수 있는가고 여겼다. 정말로 너무 잔혹하였다. 당일 활동에서 600여 명이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적출하는 것을 제지하는데 서명했고 현장에서 150명이 “3퇴” (탈당, 탈단, 탈대) 했다 ◇

밴디고는 호주 역사에서 저명한 도금지역(淘金地)이며 또한 초기 중국사람들이 이민하여 거주한 성시중의 하나이다. 당년에 벌떼처럼 모여든 중국인 광산 로동자들로 하여 이 도금의 주요 성시는 농후한 중국 색채로 충만되어 있었다.

백여 키로메터 밖에서 시위행진을 보러 온 리웨이야(李维娅)와 제시는 대만에서 왔으며 그녀들은 파룬따파 시위행진 대오의 연출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 “중국문화가 세계에서 이렇게 널리 퍼지여 우리는 매우 감격된다 ! ” ◇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북경시민 : “박희래는 천벌을 받았다”

【명혜망】 옥전 중국 대륙에서는 민심이 점차 각성하고 있으며 매우 많은 사람들이 파룬따파를 지지하고 중공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의 악행을 매우 증오하고 있다.

북경시민 : “박희래는 천벌을 받았다”

【북경에서 온 소식】 북경 모 거민구역의 리 할아버지는 학교 문어구에서 손자가 하교하기를 기다리면서 한 가장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가장은 리할아버지에게 알려주었다. 공산당의 고관 박희래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였고 생체 장기적출 매매를 외국에까지 하였으니 “당성”은 있으나 인성은 없다. 리할아버지는 듣자마자 이 “당”을 긍정적으로 탈출해야 한다! 또 그가 아는 대법제자에게 안전에 주의 하라면서 류망당은 무슨 짓이든 다한다고 알려주었다.

리할아버지는 말했다 : 박희래는 천벌을 받았다

트럼프 친구는 파룬궁을 위해 불공평을 웨쳤다

【산동저성에서 온 소식】 트럼프 탁상에서 트럼프 친구들은 하지 않는 말이 없다. 오늘날 세상기풍이 내리막질하는 백성의 정황을 말하면서 여러 사람들은 분개하고 증오하는 외는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파룬궁의 화제가 나오자 여러사람들은 모두 탄복했다 : 파룬궁은 마음이 일치하고 그들의 호소력은 힘이 있어 그 누구도 비하하지 못한다. 강××의 수평으로 파룬궁을 다스릴수 있는가? 지금의 관원들은 탐오부패 혐를 두는 것외 능력이란 없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관리가 된다면 백성들은 좋은 생활을 누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다 : 누가 해도 똑 같으며 탐하지 않는 자가 없다.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사람이 말했다 : 내가 감히 보증하겠다. 파룬궁은 절대 탐오하지 않는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몸소 겪은 일을 말했다.

몇년전 그가 지구(枳沟)주유소

에서 일하고 있을 때 경상적으로 외지의 기름 운수차가 기름을 보내왔다. 많은 기름 운수차는 통안의 기름을 몽땅 쏟아내지 않아 남은 기름으로 자신의 리익을 도모한 외에도 번마다 또 그들을 모시고 식사해야 했다. 주유소 사람들은 화가 났으나 감히 말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했다. 유일하게 운전기사 한분은 매번 기름을 보내오면 통안의 기름을 깨끗이 쏟아냈으며 식사 후에는 밥값을 남기고 갔다. 주유소 사람들이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면 그는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하기에 반드시 “찐싼런”에 따라 일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점하면 안된다고 했다. 확실히 모두들 그를 탄복했으며 모두 그가 기름을 보내주기 바랬다. 당신이 말해보라 이런 사람이 관리가 된다면 탐오하고 점유

하겠는가?

모두들 듣고나서 찬성하고 동시에 파룬궁을 대신해 불공평을 웨쳤다 : 이렇게도 좋은 공법을 그들더러 배우지 못하게 하였으니 보아하니 공산당은 가망이 없다.

공주령시 경찰 “각성성명”을 발표

【길림성 공주령에서 온 소식】 중공 18기 대회 전 길림성 공주령시 모 파출소 경찰은 공주령시 공안국의 박해명령에 협조하면서 대법제자들을 교란하였다. 후에 대법제자들이 진상을 똑똑히 말해주어 그는 대법은 사람을 구하는 불가 대법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은 참회를 표했다. 그리고 대법제자에게 그를 대신하여 각성성명을 발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경찰의 아내는 《전법륜》(파룬따파 주요서적)을 보고 파룬궁을 수련하겠다고 표했다.◇



대만 원선사 주지의 이야기

【명혜망】 원선사 (圓善寺)는 대만 영강시 중산남로 옆에 있고 주지(住持)이름은 석여현(釋如玄)이다. 친인이 파룬궁 수련으로 수익한 인연으로 접촉하여 파룬따파의 내용을 인식하였다. 그녀는 경장(經藏)에서 언녕 예언했으며 말법시기에 진정으로 사람을 구도하는 정법이 있다고 하였다. 《전법륜》 책속의 사부님의 사진 및 대법의 박대정심한 내용을 보고 그녀는 말했다 : 진정으로 사람을 구도하는 정법이 왔다.

원선사 주지는 인연이 있는 거

사 및 같은 문의 출가중생에게 “파룬따파는 좋다”를 알려주고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이 모두 와서 인식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또 열심히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련공을 배워주었다. 그녀는 또 불사내에서 파룬궁 9일 학습반을 꾸려 출가인과 거사들이 함께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을 듣게 하였다. 최근에는 더욱 부근의 련공점과 불사내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법 학습과 교류를 하였으며 아울러 불사문앞에 “파룬따파는 정법이다” 및 “파룬따파는 좋다”는 표어를 걸어놓았다.◇

중공 위생부 부부장 황결부 면직 배후의 놀라운 내막--국가장기약탈

【명혜망】2013년 2월 25일, 중공 위생부 부부장 황결부는 인체장기 헌납 영상회의에서 “중국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사형수 장기를 이용한 국가”라고 거듭 승인하였다. 게다가 강격해 눈물까지 흘리며 “우리 장기 이식 의료진은 마침내 광명정대하게 어엿하게 큰 무대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개월 후 중공의 랑회에서 황씨는 위생부 부부장에서 면직됐다. 해외 분석인사들은 중공 위생부의 장기이식 전문 대변인인 황씨가 면직된 이유는 중공이 국가기구를 움직여 대 규모적으로 강제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적출하여 판매한 내막과 관련있다고 지적했다.

대륙 장기이식 수치가 폭발적으로 팽창됐다

중국 대륙 정부측이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1994년부터 1999년의 6년 사이에 대략 1만 8천 5백 사례의 대형 장기이식을 진행했는데 매년 3천건 정도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6만 5천 건을 초과하는 대형 장기 이식을 진행했고, 년간 이식수치는 1만건 넘게 급증했는데 증가률은 거의 40%에 달한다. 대륙의 장기이식 수량은 1999년에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베섯구름의 폭발적으로 팽창됐다.

2006년 3월,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해 리윤을 쟁긴 사실이 폭로됐다. 저명한 캐나다 변호사 데이비드 매터스와 캐나다 전 아태지역 국무장관이자 전 검찰관인 데이비드 킬고어는 여러 방면의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중공 정권이 대규모로 강제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적출하고 판매했음을 증실했으며 이 행위를 “이 성구에서 종래로 없었던 사악”이라고 불렀다.



그림: 《국가장기약탈》은 여러 의학전문가, 론리학 교수와 국회의원 등이 제공한 대량의 사실, 통계수치, 증인증서 및 관련분석을 집결하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체장기적출 죄악을 폭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 6년 사이에 장기이식 수량은 사형을 집행한 수량에 비해 4만 1천 5백건이 더 많았다. 그중 대부분 장기는 파룬궁 수련생한테서 왔다.

중공은 여태껏 이에 대해 극력 부인하고 궤변하였다. 2005년, 국제 압력하에 황결부는 사형범의 장기 도용을 반대한다고 굳게 맹세하던데로부터 후에는 중국의 장기이식은 사형수의 장기에서만 의거한다고 더욱 딱 잡아뗐다.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

1999년 7월, 중공 강택민 집단이 파룬궁에 대해 전면적인 박해를 발동한 후, “명예상 더럽히고, 경제상 절단하며, 육체상 소멸”하는 멸절정책하에 수천수만의 북경으로 청원하려 간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 랍치를 당했다. 각지 수련생도 제멋대로 랍치, 감금과 상해를 받았다. 강택민은 파룬궁 수

련생에 대해 “때려서 죽여도 그만이고 때려 죽이면 자살로 치며, 신분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하라”는 밀령을 내렸다.

중공이 전력으로 국가기구를 움직여 파룬궁을 박해한 배경하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판매하는 것은 “육체상 소멸”하는 주요수단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공 군대, 무장경찰, 지방에서 본전없이 대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였다. 중공은 군대, 무장경찰을 움직이고 각종 군사, 전투시설을 이용하여 집중영을 만들었고 또 대대적으로 대형 감옥과 로교소를 확장하고 새로 건설했으며, 군대를 핵심으로 정법계통과 위생계통이 배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랍치,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등록, 혈액신체검사, 컴퓨터 관리를 진행하여 방대한 산 사람장기창고를 만들어 통일적으로 감금하고, 분배배치하고, 운수하고, 생체적출하고, 시신소각하여 흔적을 없앴다.

2006년 3월 9일, 한 내부인사가 처음으로 해외 매체에 중공이 심양시 소가툰에 비밀집중영이 있는데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을 감금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2006년 3월 19일,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 장기적출 수술을 했던 의사의 아내가 증인으로 나섰다: 소가툰 료녕성 혈전중서의 결합병원에서 2001년 말부터 2003년 10월까지 그녀의 남편은 직접 2천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 눈에서 각막을 뜯어냈다. 이어서 다른 외과의사가 다른 장기를 적출했는데 이것은 모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가 2004년에 병원을 떠날 때 6천여명 파룬궁 수련생 중의 4분의 3은 이미 생체 장기적출을

(4면으로)

(3 면의 계속)

당한 뒤 시신을 태워 흔적을 없앴다.

이어서 심양군구 후근부의 한 로 군의관은 여차례 해외 매체에 폭로했다: “전국에 소가툰 비밀 집중영과 흡사한 집중영은 최소 36 개 있다. 길림성에 위치한 672—S부호의 집중영에는 12 만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과 의견이 다른 인사가 있다…….”

이 죄악의 퍼즐중 황결부는 중공 국가 장기약탈이 위생계통에서의 실시자였다.

세상은 사악이 행패를 부리는 악원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 장기이식 두번째 대국으로서 중공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영광을 누릴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인륜을 위반한 패덕 의사들은 의학계의 토벌대상으로 되었다.

2012년 년말 대만 3 천 명 의사는 련명으로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과 량심범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것을 반대했다.

2012년 10월 6일, 국제 비정부조직 “강제 장기적출을 반대

하는 의사협회”는 유럽에서 중공이 강제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 를 적출하는 것을 제지하는 청원을 발기했다. 한달 반 사이에 유럽 36 개 국의 16 만 6461 명 시민이 서명했는데 그 중 7 백여 명의 유럽의회 의원, 유럽 각국 국회의원과 시장 등 인사를 포함한다.

.....

“체계적으로 사형수의 장기 를 이용한다”는 말로 세상 사람의 이목을 현혹시킴으로써 중공의 국가 장기약탈 행위가 정의의 심판

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장기기 증분배체계를 설립한다”는 허울을 쓴 황결부와 중공의 장기이식 의사들은 “정정당당하게 활약을 하며 큰 무대에서 ” 계속 살인하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

대규모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강제적출한 악인 왕립군, 박희래, 주영강이 잇달아 떨어진 뒤 황결부가 면직됐다. 용서받을 수 없는 원흉과 악인에 대한 정의의 심판은 이미 멀지 않다. ◇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선색 : 단동 군인의 회억

【명혜망】 2006년 가을의 어느 우연한 기회에 나는 료녕성 단동시 군인이었던 짚은이를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지금 생각해도 공포스러운 한가지 일을 이야기했다 :

“2000년 12월의 어느 하루 날씨는 매우 추웠다. 약 새벽 1시 좌우에 갑자기 우리 부대는 긴급 소집되어 전신 무장으로 단동기차 역으로 가서 기차역을 겹겹히 포위하였다. 한동안 지나서 천진에서부터 오는 한 열차가 역으로 들어왔다. 기차에서 몇명의 군관과 몇명의 의사 옷을 입은 군의가 내렸다. 그들은 우리의 군관하고 은밀

히 한동안 교섭하고나서 우리 부대의 일부를 뽑아 기차 압송운수를 책임졌다. 그중에는 우리 련도 뽑히였으며 우리는 두 사람씩 기차 바구니 하나를 책임졌다.”

차에 오르기 전 우리는 무엇을 압송운수하는지 몰랐으며 다만 이번의 매우 긴장한 분위기가 정상이 아님을 느꼈다. 차에 오른 후 우리는 비로서 놀랍게 발견하였다. 이것은 평시에 전문 짐승을 운수하는 열차였으며 매 바구니에는 모두 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실은 것은 짐승이 아니라 파룬궁을 련마하는 사람들이 였으며 남녀로소가 모두 있었으며 듣자하

니 북경에 상방하려 갔던 사람이 라고 했다. 그들은 하나 하나가 모두 수쇠로 차 바구니 윗부분에 있는 하나 하나의 쇠 대들보에 장겨져 있었는데 마치 닭을 걸어 놓은 것 같았다. 나와 다른 전우는 모두 멍해져 감히 말조차 하지 못했으며 단지 돌격총을 들고서 멍하니 서 있었다. 12월의 동북의 겨울, 또 밤중에 쾌속으로 달리는 천정이 막히지 않는 열차가 얼마나 추운가는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다.”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열차는 마침내 목적지 역에 도착했다——“심양소가툰” ◇